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卒業醫師의 國內 醫療活動 實態에 關한 調査*

— 1951~1976年 卒業者中心 —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豫防醫學教室

崔 三 燮・白 行 寅

=Abstract=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Doctors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ollege During the Year of 1951 —1976

Sam Sop Choi, M.D., Haing In Paik, M.D.

*Dep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Korea*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doctors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ollege during the year of 1951—1976 and who are living in country was carried out with analyzing the data of annual medical doctor registration record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 in May 1976. And the results are obtained as followings:

1) Out of 1,014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during the year of 1951 —1976, 404 doctors (40.0%) who are living in Korea had reprinted the annual medical doctor registration in the year of 1976.

2) Out of 404 doctors 90.6% of them applied to internships and 1.7% to basic medical science training and the rest 7.7% to medical practice directly after graduation Ewha Medical College.

3) It was found that the rate of internships applied is increasing according to the graduation year; such as 82.2% in 1951—1961. 90.0% in 1962—1971 and 96.0% in 1972—1976.

4) Three hundred and sixty six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had taken intern and resident training at 46 educational hospitals in country during the year of 1951—1976 and 27 hospitals of them are located in Seoul City area.

5) 82.7% of 366 interns and 84.6% of 292 residents among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had taken the training at the hospitals located in Seoul City area.

*本 論文은 1977年度 梨花女子大學校 教授研究費支給에 依한 것임.

6) Among 366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53.5% of them had taken the course of internships and residency at same educational hospitals and the rest 46.5% of them had moved to other hospitals for residency after internships.

7) Among 167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and finished residency, 130 doctors (78.0%) passed the board examination.

8) The major specialities of 130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and passed the board examination were obstetrics and gynecology(30.5%), pediatrics(17.0%), ophthalmology(14.0%), E.N.T.(8.0%), and internal medicine(7.5%).

9) Out of 404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5.2% of them had recieved doctor degree in medicine and 13.6% only master degree in medicine.

10) Among 404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86.4% of them was working in Seoul City area, 12.6% in the other city area and 1.0% in township area for medical teaching and/or service.

11) Among 404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30.4% of them was operating own clinics, 23.5% was working in public or private medical facilities including medical college, 6.7% took rest temporarily from practice, and 39.4% was under training as intern or resident at education hospitals in country.

緒 論

醫療의 社會化를 向한 世界的 潮流는 開發國家에 있어서는 勿論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도 醫療를 國民의 衣·食·住와 같은 基本的 權利로 認識하게 하는 概念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날로 增大되고 있는 國民 醫療要求를 解消하기 위하여, 國家的 次元의 醫療機構와 機能改造를 前提로 하는, 國民醫療保險 및 醫療保護制度를 4次 經濟 開發 計劃의 保健分野 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바¹⁾ 이러한 社會開發을 指向하는 國民의 意志는 우리에게 福祉社會 俱現을 위한 國民皆醫療保險을 1980年代에는 實現할 수 있다는 期待와 希望을 갖게하고 있다. 이와같이 社會의 發展과 國民醫療要求의 增大는 우리나라의 醫療人은 勿論 一般國民의 醫療概念과 態度에 變化를 가져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醫療教育이 이러한 變遷되는 社會的 醫療要求에 對處할 수 있는 醫療人을 育成할 수 있기를 期待하고 있다.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이 1945년에 大韓民國의 教育理念과 基督教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이 나라 國民의 醫療要求에 副應하고 醫療界와 醫學界에 이바지할 수 있는 醫師의 育成을 目的으로²⁾ 開設된 이래 1976年까지 期間中에 25회에 걸쳐 社會에 排出한 卒業生數

는 1,014名에 이른다³⁾. 이러한 時點에서 梨花醫大 卒業生이 社會에 進出하면서 醫師로서의 自己教育을 어디서 어떻게 닦고 있으며 또한 어디서 어떻게 이 나라 醫療와 醫學에 參與하고 地域社會에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단지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卒業醫師의 實態를 파악하는 데 意義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醫科大學을 卒業하는 學生들과 醫科大學에서 教育에 臨하는 教授에게도 活用될 수 있는 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調査內容을 整理 여기에 報告한다

調査對象 및 方法

A. 調査對象

이 調査는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梨花醫大)을 19

표 1. 조사대상자

구 분	졸업횟수	졸업년도	*조사대상자
Group A	1~10	1951~1961	90
Group B	11~20	1962~1971	160
Group C	21~25	1972~1976	154
합계	1~25	1951~1976	404

* 1976년도 정기 의사 신고한 국내 거주자.

51년부터 1976년까지 기간중에 졸업하고 1976년 5월 현재 國內에 居住하면서 1976年度 保健社會部에서 施行한 定期醫師申告를 필한 404명의 醫師를 對象으로 하였으며, 資料分析에 있어서 對象者間的 卒業年代 經過에 따른 差異를 比較하기 위하여 卒業回數를 基準하고 專門醫修鍊年限(5個年)을 고려하여 1~10回 卒業醫師 90名을 그룹 "A"로, 11~20回 卒業醫師 160名을 그룹 "B"로, 21~25回 卒業醫師 154名을 그룹 "C"로 區分하였다(표 1).

B. 調査方法

大韓醫師協會의 協助를 받아 同協會가 保管중인 1976年度 定期醫師申告書⁶⁾ 副本綴을 根據로 하여 出身大學記載欄內容을 中心으로 梨花醫大 出身醫師를 가려내고 本調査 目的으로 事前에 제작하였던 調査카드에 調査項目別로 內容을 移記後 發見된 未記載事項이나 內容에 對하여서는 本人에게 直接 確認하였거나 同期同窓醫師를 찾아 確認하고 補充하였다. 이 調査는 2名の 研究員과 5名の 研究補助員에 의하여 1977年 8월부터 1978年 2月까지의 기간중에 이루어졌다.

調査成績 및 考按

A. 大學卒業後 社會進出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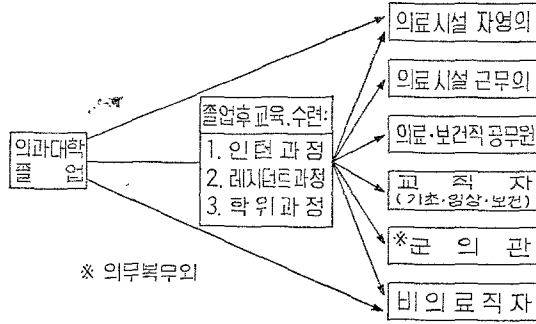
梨花醫大를 卒業하고 1976年 현재 國內에 居住하는 醫師 404名에 對한 大學卒業後의 社會進出經路⁷⁾를 보면 31名(7.7%)은 卒業後 곧바로 醫療界에 進出하여 醫療에 參與하였고 나머지 372名(92.3%)은 卒業後 醫療界나 醫學界에 進出하기에 앞서 인턴過程(90.6%)이나

基礎醫學過程(1.7%)等 卒業後 延長 修鍊教育을 擇하고 있었다. 한편 卒業年代에 따른 그룹別 人턴修鍊 就業率은 그룹 "A"는 82.2%, 그룹 "B"는 90.0%, 그룹 "C"는 96.0%였다. 또한 卒業後 人턴修鍊을 擇한 366명의 醫師中 卒業年代로 보아 臨床修鍊期間中에 있는 그룹 "C"(148)를 除外한 그룹 "A"와 "B"(218名)의 人턴修鍊 就業後의 經過를 보면 218名(87.2%)中 26名(10.4%)은 人턴修鍊過程만을 修了하고 레지덴트 修鍊過程은 擇하지 않았고, 192名(76.8%)이 레지덴트 過程修鍊醫로 就業하고 있었다. 또한 레지덴트過程에 進出한 192名(76.8%) 中 15名(6.0%)은 修鍊中途에서 中斷하였으며, 10名(4.0%)은 修鍊中이었으며, 36名(14.4%)은 레지덴트修鍊過程은 修了하였으나 아직 專門醫資格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131名(52.4%)이 레지덴트過程을 修了하고 專門科目標榜資格을 받고 있었다(표 2). 따라서 醫師資格面으로 따지는 그룹 "A"와 "B"에 속하는 250명의 醫師中 119名(47.6%)은 一般醫師로서 131名(52.4%)은 專門科目標榜資格醫師로서 醫療界와 醫學界에 奉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梨花醫大出身醫師의 卒業後의 社會進出經路別醫師分布를 朴等⁷⁾이 調査報告한 우리나라 醫科大學卒業醫師의 社會進出經路에서 나타난 醫師分布率과 비교해 보면 곧바로 醫療에 從事한 醫師率(9.4%)과 基礎醫學을 擇한 醫師率(2.6%)에 있어서는 梨花醫大出身醫師들이 多少 낮은 率이었고, 朴等이報告한 人턴過程修鍊 平均 就業率(88.0%)과 年代別 人턴修鍊 就業率인 1965年 90.5%, 1970年 92.6%에 比較하여서는 梨花醫大出身醫師들이 多少 높은 率을 나타내고 있었으

표 2. 1976년도 정기 의사 신고한 국내 거주 이화의대 졸업의사의 졸업후 연장교육 실태

구분 군별 (졸업년도)	졸업후 수련교육을 받은 의사														
	총계		기초의				임상의학 수련의사								
			총계	인턴수련과정	인턴과정수련후레지덴트수련과정	소계	수련중인자	수료한자	소계	중단자	수련중인자	수료한자	전문의자격자		
1971년 이전졸업자	Group A	수	90	15	75	1	74	11	—	11	63	10	—	19	34
	(1951~1961)	%	100.0	16.7	83.3	1.1	82.2	12.2	—	12.2	70.0	11.1	—	21.1	37.8
	Group B	수	160	13	147	3	144	15	—	15	129	5	10	17	97
	(1962~1971)	%	100.0	8.1	91.9	1.9	90.0	9.4	—	9.4	80.6	3.1	6.2	10.6	60.7
	소 계	수	250	28	222	4	218	26	—	26	192	15	10	36	131
		%	100.0	11.2	88.8	1.6	87.2	10.4	—	10.4	76.8	6.0	4.0	14.4	52.4
1972년 이후졸업자	Group C	수	154	3	151	3	148	48	46	2	100	1	99	—	—
	(1972~1976)	%	100.0	2.0	98.0	2.0	96.0	31.1	29.8	1.3	64.9	0.6	64.3	—	—
합 계 (1951~1976)		수	404	31	373	7	366	74	46	28	292	16	109	36	131
		%	100.0	7.7	92.3	1.7	90.6	18.3	11.4	6.9	72.3	4.0	27.0	8.9	32.4



도 1. 의과대학 졸업자의 의료사업 진출향로.

나 큰 差異는 없었으며 年代經過에 따라 인턴過程修鍊 就業率이 增加하고 있는 傾向은 兩群에서 共通으로 觀察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醫科大學 卒業醫師의 인턴過程修鍊就業率 이 래를 거듭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現象은 오늘날 醫學의 發展과 醫療의 發達이 醫學과 醫療對象의 細分專門化를 促進하고 技術에 있어서의 分業化現象이 加速化되면서부터 全人的 醫療보다도 對器官的 乃至는 對疾病의 醫療를 指向하는 傾向을 가져옴으로써 한 醫師로서 自己의 醫療所管과 役割을 制限하고 分明하게 할 수 있는 特定科目(分野)을 擇하는 것이 오히려 能率의 이고 社會에 있어서의 醫療從事時에도 有利 하여질 수 있다는 自己中心의 判斷과 醫療人에 의하여 結果의으로 誤導된 一般國民의 專門醫 選好傾向을 專門醫 需要에 對한 要求增大로 錯覺케 하는 專門醫教育制度의 缺陷에 原因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보다 根本的으로 는 우리나라의 國民醫療利用度의 缺陷과 醫科大學教育過程에 있어서의 教育目的 實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때 原因이 있다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國民醫療의 次元에서 醫療施設과 醫療要員의 職能이 區分되고 그에 따른 適正한 需給計劃을 위한 制度整備와 實行이 先行되고 아울러 醫學教育이 이러한 社會의 要求에 副應할 수 있는 教育目的 再確立과 教育施行 없이는 이러한 專門醫 志願 偏重現象은 (健全한 國民 醫療發展의 阻害要素이나) 根本的으로 是正될 수 없기 때문이다.

B. 修鍊教育病院別 修鍊醫分布

梨花醫大를 卒業하고 1976年 현재 國內에 居住하는 醫師들이 醫科大學卒業後 延長教育으로서의 臨床 修鍊을 받은 國內 修鍊教育病院의 數는 梨花醫大 附屬病院을 비롯하여 모두 46個病院 이었으며 그 中에는 인턴過程修鍊을 받은 37個病院과 레지던트過程修鍊을 받은 36個病院이 一部에 있어서는 서로 겹쳐 있었다. 한편

卒業年代에 따라 修鍊을 받은 修鍊病院病院數는 그룹 "A"가 8個病院, 그룹 "B"가 25個病院, 그룹 "C"가 27個病院이었으며, 레지던트修鍊을 받은 病院數는 各 各 13個病院, 25個病院 및 23個病院이었다. 또한 梨花醫大 出身醫師中 인턴過程修鍊을 받은 總數 366名 (100.0%)의 2%以上の 醫師들이 修鍊教育을 받은 바 있는 인턴修鍊教育病院은 梨花醫大 附屬病院(45.5%), 延世醫大 附屬病院(7.1%), 가톨릭醫大 附屬病院(4.1%), 國立醫療院(7.9%), 國立서울病院(3.0%), 서울赤十字病院(2.2%), 全州예수病院(3.0%)等 7個病院이었고, 레지던트過程修鍊을 받은 總數 292名(100.0%)의 2.0%以上の 醫師들이 修鍊을 받았던 레지던트修鍊教育病院은 梨花醫大 附屬病院(49.3%), 延世醫大 附屬病院(5.5%), 가톨릭醫大 附屬病院(5.5%), 서울醫大 附屬病院(4.1%), 國立醫療院(8.6%), 釜山日新婦人病院(2.8%), 全州예수病院(2.8%)等 7個病院이었다. 그리고 인턴修鍊을 받은 醫師(366名)의 82.7%와 레지던트修鍊을 받은 醫師(292名)의 84.6%가 서울에 있는 修鍊教育病院에서 修鍊教育을 받고 있었다(표 3).

梨花醫大 出身醫師들이 修鍊教育을 받았던 인턴修鍊教育病院과 레지던트修鍊教育病院間의 連結關係를 보면 292名中 67.1%(196名)가 같은 修鍊教育病院에서 인턴修了後 레지던트 修鍊에 進出하고 있는 反面에 32.9%(96名)는 인턴修鍊후 레지던트 過程은 다른 教育病院에서 修鍊받고 있었다(표 4).

梨花醫大 出身醫師들이 卒業後 延長教育을 받은 修鍊教育病院은 卒業年代가 經過할수록 그 數가 增加하고 病院所在地域 또한 擴大되고는 있으나 修鍊 받은 醫師의 修鍊病院別 分布에 있어서는 梨花醫大 附屬病院을 中心으로한 서울地域 所在 修鍊教育病院에 集中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몇個 修鍊教育病院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先輩와 後輩가 繼續的으로 한病院에서 修鍊教育을 받는 傳統的 繼承이 維持되고 있는 病院이 別로

표 3. 1976년도 정기외사신고한 국내거주 이화의대졸업의사가 수련받은 지역별 병원별 수련의사 분포
(1951~1976년도 졸업자)

수련구분 수련지역및 수련병원		국별 (졸업년도)	인턴과정수련자수					레지던트과정 수련자수				
			Group A	Group B	Group C	계		Group A	Group B	Group C	계	
			1951	1962	1972	수	%	1951	1962	1972	수	%
			1961	1971	1976			1961	1971	1976		
서울특별시 지역	1. 이화의대병원		60	55	52	167	45.5	48	53	43	144	49.3
	2. 연세의대병원		1	13	12	26	7.1	1	9	6	16	5.5
	3. 가톨릭의대병원		—	12	3	15	4.1	4	9	3	16	5.5
	4. 고려의대병원		—	1	—	1	0.3	—	1	—	1	0.3
	5. 한양의대병원		—	—	1	1	0.3	—	2	1	3	1.0
	6. 경희의대병원		—	—	—	—	—	—	1	—	1	0.3
	7. 중앙의대병원		—	—	—	—	—	—	—	2	2	0.7
	8. 고려병원		—	—	4	4	1.1	—	—	4	4	1.4
	9. 서울위생병원		—	1	4	5	1.4	—	—	—	—	—
	10. 순천향병원		—	—	4	4	1.1	—	—	2	2	0.7
	11. 백병원		—	—	1	1	0.3	—	—	—	—	—
	12. 영동성심병원		—	—	—	—	—	—	—	1	1	0.3
	13. 을지병원		—	—	—	—	—	—	1	1	2	0.7
	14. 제일병원		—	—	—	—	—	—	1	1	2	0.7
	15. 서울의대병원		—	5	2	7	1.9	1	8	3	12	4.1
	16. 국립의료원		—	11	18	29	7.9	—	11	14	25	8.6
	17. 국립서울병원		3	1	7	11	3.0	—	—	2	2	0.7
	18. 국립원호병원		—	—	3	3	0.8	—	—	—	—	—
	19. 국립경찰병원		1	—	1	2	0.5	1	—	2	3	1.0
	20. 국립원자력병원		—	—	1	1	0.3	—	—	—	—	—
	21. 국립정신병원		—	1	—	1	0.3	—	1	—	1	0.4
	22. 시립중부병원		1	4	—	5	1.4	—	—	—	—	—
	23. 시립동부병원		1	2	1	4	1.1	1	2	1	4	1.4
	24. 시립남부병원		—	2	—	2	0.5	—	1	—	1	0.3
	25. 영등포시립병원		—	2	—	2	0.5	—	1	—	1	0.3
	26. 서울척십자병원		—	4	4	8	2.2	1	—	1	2	0.7
	27. 한일의원		—	2	2	4	1.1	—	1	1	2	0.7
소 계			67	116	120	303	82.7	57	102	88	247	84.6
수련받은병원수			(6)	(15)	(17)	(22)		(7)	(15)	(17)	(22)	
부산광역시	28. 일신부인병원		—	—	5	5	1.4	1	6	1	8	2.8
	29. 침례병원		1	2	3	6	1.6	—	3	2	5	1.7
	30. 북음병원		—	—	—	—	—	—	1	—	1	0.4
	31. 메리노병원		—	1	—	1	0.3	—	—	—	—	—
	32. 부산의대병원		—	3	1	4	1.1	—	2	1	3	1.0
경기도	33. 인천기독병원		—	—	3	3	0.8	1	—	—	1	0.4
	34. 경기도립병원		—	—	1	1	0.3	—	—	—	—	—
	35. 수원도립병원		—	3	1	4	1.1	1	—	—	1	0.4

강원도	36. 원주기독병원	—	2	4	6	1.6	—	1	2	3	1.0
	37. 원주연합병원	—	1	—	1	0.3	—	—	—	—	—
	38. 장성병원	—	—	2	2	0.5	—	—	—	—	—
경북	39. 대구동산병원	3	1	—	4	1.1	1	2	—	3	1.0
	40. 대구파티마병원	—	1	—	1	0.3	—	1	—	1	0.3
	41. 경북의대병원	—	—	—	—	—	1	—	—	1	0.3
경남	42. 성분도병원	—	1	—	1	0.3	—	—	—	—	—
전북	43. 전주예수병원	—	6	5	11	3.0	—	4	4	8	2.8
	44. 전북의대병원	—	—	—	—	—	—	—	1	1	0.3
전남	45. 광주기독병원	—	—	1	1	0.3	—	1	—	1	0.3
	46. 조선의대병원	—	—	—	—	—	—	1	—	1	0.3
소 계		4	21	26	51	14.0	15	22	11	38	13.0
수련 받은 병원수		(3)	(10)	(10)	(15)		(6)	(10)	(6)	(14)	
의 국 병 원		3	7	2	12	3.3	1	5	1	7	2.4
합 계		74	144	148	366	100.0	63	129	100	292	100.0
수련 받은 국내 병원 수		(8)	(25)	(27)	(37)		(13)	(25)	(23)	(36)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梨花醫大가 서울地域에 位置하고 있고 志願하는 學生들이 大部分 서울所在 高等學校出身이라는 地緣의 特性이 卒業後 修鍊教育病院選擇에 있어서 強하게 作用하는 외에도 現實의 으로 大部分의 修鍊教育病院이 大都市에 偏在되어 있고 또한 施設水準의 隔差等社會의 特性과 專攻하고자 하는 科目에 따른 學問의 要求가 修鍊病院選定에 크게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 외에도 生活根據地였던 서울에의, 出身母校에의 歸巢心理도 作用因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뒷받침 하여 주는 資料로는 全體修鍊醫의 50%에 가까운 數가 梨花醫大 附屬病院에서 修鍊教育을 받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勿論 卒業後에도 繼續하여 出身大學附屬病院에서 修鍊을 받게될 경우 教授나 先輩, 後輩 및 많은 同僚間에서 느껴지는 心理的 安定이나 平安 등은 利點이라 할 수 있겠으나 將次獨立의 으로 醫療界에 臨하여야 함을 考慮한다면 溫床의 環境과 분위기에서 오는 不知中の 安逸과 依他心 등은 開拓精神이나 克己心을 갖추는 面에 있어서나 學問과 技術의 交流面에 있어서는 失點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先輩로서의 開拓의 先導의 使命이나 役割을 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變化될 國民醫療의 方向과 醫師의 役割과 本然 使命을 생각할 때, 大學의 教授와 先輩들은 大學卒業 後의 올바른 後輩醫師의 進路에 대해 보다

積極的이고 巨視的인 指導와 助言이 必要하겠으며 梨花醫大 出身醫師들 自身도 各자의 使命을 再認識하고 슬기로운 判斷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C. 專門科目 標榜資格 取得

梨花醫大를 卒業하고 1976年 現在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醫師로서 레지던트 修鍊過程을 修了한 醫師數는 167名이었으며 그 중에서 專門科目 標榜資格을 받은 醫師는 131名(79.0%)였다. 한편 卒業年代別醫師의 專門醫資格 取得率은 그룹 "A"가 64.0%, 그룹 "B"가 85.0%였다(표 5).

專門醫資格을 받은 醫師 131名의 取得한 專門科目의 分布를 보면 産婦人科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小兒科 17.0%, 眼科 14.0%, 耳鼻咽喉科 8.0%, 內科 7.5%, 麻酔科 6.0%, 放射線科 4.5%, 臨床病理科 3.0%, 皮膚科 2.0%, 外科 1.5%, 神經精神科 1.5%, 豫防醫學科 1.5%, 解剖病理學科 1.5% 및 整形外科 1.0%의 順이었다. 이러한 專門科目別 分布를 朴等⁷⁾이 報告한 우리나라 專門科目別 醫師分布인 産婦人科(16.2%), 小兒科(9.9%), 眼科(5.0%), 耳鼻咽喉科(6.2%), 麻酔科(3.2%), 放射線科(3.5%), 臨床病理(2.1%)와 比較하면 梨花醫大 出身醫師에서 높은 比率을 나타내는 반면, 外科(17.4%), 內科(13.5%), 整形外科(9.5%), 에 比較해서는 낮은 比率을 보이고 있었고, 形成外科, 神經外科, 胸部外科, 泌尿器科, 結核科를 專門科目으로 하여 專門科目 標榜 資格

표 4. 1976년도 정기의사 신고한 국내거주 이화의대 졸업의사가 수련받은

지역	데지베트 수련병원 인턴 수련병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 화 의 대 병 원	연 세 의 대 병 원	가 톨 릭 의 대 병 원	고 려 의 대 병 원	한 양 의 대 병 원	경 희 의 대 병 원	충 양 의 대 병 원	서 울 의 대 병 원	제 일 병 원	을 지 병 원	고 려 병 원	한 일 병 원	국 립 의 료 원	국 립 서 울 병 원	국 립 정 신 병 원	국 립 경 찰 병 원	시 립 중 부 병 원	시 립 동 부 병 원
서울특별시	1 이화의대병원	113	1	2					2					2			1		
	2 연세의대병원	9	1				1			1									
	3 가톨릭의대병원	2		8		1													
	4 고려의대병원				1														
	5 한양의대병원	1																	
	6 서울의대병원							7											
	7 고려병원	2										2							
	8 서울위생병원		1	1						1									1
	9 순천향병원	1																	
	10 백병원																		
	11 한일병원												2						
	12 국립의료원			1	1				1										
	13 국립서울병원	4		1					1						2				
	14 국립원호병원							1								20			
	15 국립경찰병원																		2
	16 국립원자력병원																		
	17 국립정신병원																	1	
	18 시립중부병원	1								1	1				1				1
	19 시립동부병원	1	1																1
	20 시립남부병원	1																	
	21 서울적십자병원	2													2				
	22 시립영등포병원	1																	
부산광역시	23 부산일신병원																		
	24 부산침례병원														1				
	25 부산의대병원																		
	26 메리노병원																		
	27 수원도립병원	3										1							
	28 인천기독병원	2				1													
	29 경기도립병원			1															
	30 원주기독병원																		1
	31 원주연합병원																		
	32 장성병원																		
	33 대구동산병원																		
	34 파티마병원																		
	35 성분도병원																		
	36 전주예수병원	1												1					
	37 광주기독병원																		
	38 의국			2	2				1										
합계	수	144	16	16	1	3	1	2	12	2	2	4	2	25	2	1	3	4	1
	%	39.3	4.4	4.4	0.3	0.3	0.3	0.5	3.3	0.5	0.5	1.1	0.5	6.8	0.5	0.3	0.8	1.1	0.3

인턴수련병원과 페트리멘 수련병원관계 (1951~1976년 졸업자)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합	계	
연안대학교 수련병원	수원대학교 수련병원	연세대학교 수련병원	서울직실자 수련병원	부산실신 수련병원	부산침례 수련병원	부산의대 수련병원	부산복음 수련병원	수원도립 수련병원	인천기독 수련병원	원주기독 수련병원	대구동산 수련병원	대구파티 수련병원	경북의대 수련병원	전주예수 수련병원	전북의대 수련병원	광주기독 수련병원	조선의대 수련병원	의국	기타	수	%	
			1	3	1			1			1		1	1					37	167	45.5	
																1			3	26	7.1	
																		1	3	15	4.1	
																				1	0.3	
																				1	0.3	
																				7	1.9	
																				4	1.1	
																			1	5	1.4	
																			2	4	1.1	
																			1	1	0.3	
																			2	4	1.1	
							1												5	29	7.9	
			1																2	11	3.0	
																			2	3	0.8	
																				2	0.5	
																			1	1	0.3	
																				1	0.3	
																				5	1.4	
																			1	4	1.1	
																			1	2	0.5	
				1															1	8	2.2	
1																				2	0.5	
	1			1																3	1.4	
				1	2															2	1.6	
				1		2														1	1.1	
					1																1	
																					4	1.1
																					3	0.8
																					1	0.3
																					4	1.1
																					3	0.8
																					1	0.3
																					2	1.6
																					1	0.3
																					2	0.5
																					2	0.5
										1											1	1.1
											2										1	0.3
												1									1	0.3
																					11	3.0
																					1	0.3
																					12	3.3
1	2	1	2	8	5	3	1	1	1	3	3	1	1	8	1	1	1	1	7	*74	366	100.0
0.3	0.5	0.3	0.5	2.2	1.4	0.8	0.3	0.3	0.3	0.8	0.8	0.3	0.3	2.2	0.3	0.3	0.3	1.9	20.2	100.0		

표: □표: 인턴·페트리멘 동일병원 수련자(합계 196명).

*표: 인턴·수련중인자(74명).

표 5. 1976년도 정기의사 신고한 국내거주 이화의대 출신의사의 수련병원별 전문의료과목
표방자격취득현황(1951~1971년 졸업자)

수련병원 (졸업년도)	합 계			Group A(1951~1961)			Group B(1962~1971)		
	전문의 수련이 수자(A)	전문의 자격취 득자(B)	% [B/A]	전문의 수련이 수자(A)	전문의 자격취 득자(B)	% [B/A]	전문의 수련이 수자(A)	전문의 자격취 득자(B)	% [B/A]
1 이화의대병원	92	68	74.0	44	28	64.0	48	40	83.0
2 연세의대병원	10	10	100.0	1	1	100.0	9	9	100.0
3 가톨릭의대병원	11	10	90.0	2	1	50.0	9	9	100.0
4 고려의대병원	1	1	100.0	—	—	—	1	1	100.0
5 경희의대병원	1	1	100.0	—	—	—	1	1	100.0
6 을지병원	1	1	100.0	—	—	—	1	1	100.0
7 제일병원	1	0	—	—	—	—	1	0	—
8 서울의대병원	8	6	75.0	1	0	50.0	7	6	86.0
9 국립의료원	8	7	88.0	—	—	—	8	7	88.0
10 국립정신병원	1	1	100.0	—	—	—	1	1	100.0
11 시립중부병원	1	1	100.0	1	1	100.0	—	—	—
12 시립동부병원	2	1	50.0	—	—	—	2	1	50.0
13 시립남부병원	1	0	—	—	—	—	1	0	—
14 적십자병원	1	1	100.0	1	1	100.0	—	—	—
15 한일병원	1	1	100.0	—	—	—	1	1	100.0
16 일신부인병원	6	5	83.0	1	1	100.0	5	4	80.0
17 부산침례병원	3	1	33.0	—	—	—	3	1	33.0
18 부산의대병원	2	1	50.0	—	—	—	2	1	50.0
19 원주기독병원	1	1	100.0	—	—	—	1	1	100.0
20 대구동산병원	2	2	100.0	—	—	—	2	2	100.0
21 대구파티마병원	1	1	100.0	—	—	—	1	1	100.0
22 경북의대병원	1	0	—	1	0	—	—	—	—
23 전주혜수병원	4	4	100.0	—	—	—	4	4	100.0
24 조선의대병원	1	1	100.0	—	—	—	1	1	100.0
25 기타(미국)	6	6	100.0	1	1	100.0	5	5	100.0
합 계	167	131	79.0	53	34	64.0	114	97	85.0

표 6. 1976년도 정기의사신고한 국내거주 이화대의 출신 의사가 취득한 전문의표방자격과목과 근무의료시설

근무구분	전문의표방과목	산 소 안 이 내 마 방 임 피 외 신 예 해 정 성 신 품 비 결																
		합계	부	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의료시설 자영자	일반의원	4	3.0	2	—	2	—	—	—	—	—	—	—	—	—	—	—	—
	전문과의원	43	33.0	20	10	7	5	—	—	—	—	1	—	—	—	—	—	
	수	47	36.0	22	10	9	5	—	—	—	—	1	—	—	—	—	—	
	소 계	%100.0		47.0	21.0	19.0	11.0	—	—	—	—	2.0	—	—	—	—	—	
의료시설 봉직자	종합병원	50	38.0	8	8	4	5	7	6	5	2	2	—	1	—	2	—	—
	전문과의원	8	6.0	4	1	2	—	1	—	—	—	—	—	—	—	—	—	—
	특수병원	2	1.5	—	—	—	—	—	—	—	1	—	—	—	—	1	—	—
	보건소	2	1.5	—	—	—	—	1	—	—	—	—	—	—	1	—	—	—
	의과대학	16	12.0	2	2	3	1	1	1	1	1	1	1	1	1	—	—	—
	수	78	59.0	14	11	9	6	10	7	6	4	3	1	2	2	2	1	—
	소 계	%100.0		18.0	14.0	11.5	8.0	13.0	9.0	8.0	5.0	4.0	1.0	2.5	2.5	2.5	1.0	—
	수	6	5.0	4	1	—	—	—	1	—	—	—	—	—	—	—	—	—
휴직자		%100.0		66.0	17.0	—	—	—	17.0	—	—	—	—	—	—	—	—	—
합계	수	131	100.0	40	22	18	11	10	8	6	4	3	2	2	2	1	—	—
	%100.0			30.5	17.0	14.0	8.0	7.5	6.0	4.5	3.0	2.0	1.5	1.5	1.5	1.5	1.0	—

표 7. 1976년도 정기의사신고한 국내거주 이화대의 졸업자의 학위기 취득실태,

졸업년대	구분	합 계				일반과목표방의사				전문과목표시자격의사			
		졸업자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	합계	졸업자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	합계	졸업자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	합계
1951~1971	Group A	수	90	13	18	56	4	6	34	9	12		
	%	100.0	14.4	20.0	100.0	7.1	10.7	100.0	26.5	35.3			
	Group B	수	160	7	26	64	1	6	96	6	20		
	%	100.0	4.4	16.3	100.0	1.6	9.4	100.0	6.3	20.8			
	소 계	수	250	20	45	120	5	12	131	15	33		
	%	100.0	8.0	18.0	100.0	4.2	10.0	100.0	11.5	25.0			
1972~1976	Group C	수	154	1	11	154	1	11	—	—	—		
	%	100.0	0.6	7.1	100.0	0.6	7.1	—	—	—			
합계	수	404	21	56	274	6	23	131	15	33			
	%	100.0	5.2	14.0	100.0	2.2	8.4	100.0	11.5	25.0			

을 取得한 醫師는 없었다(표 6). 醫師들이 醫科大學 卒業後 臨床醫學에서 專門科目을 擇하는데 있어서는 自身の 學問的 趣向과 素質 외에도 專攻하고자 하는 臨床科目의 現在와 未來의 社會的 要求, 父母 兄弟의 意

見) 周圍의 教授 先輩 親知들의 勸告 등이 意思決定要因으로 作用할 것으로 생각되나 女子醫師에 있어서는 이 외에도 專門科目이 지니는 診療技術上的 體力이나 特性要件, 將次的 家庭과 職業의 連關性等도 作用하는

重要要因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러한 결과가梨花醫大出身醫師의 專攻科目分野와 그 取得率分布에 特性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본다.

D. 學位取得

梨花醫大를 卒業하고 1976年 현재 國內에 居住하는 醫師로서 博士學位를 取得한 醫師는 404名 中 5.2% (21名)이었고, 碩士學位만을 取得한 醫師는 1.40% (56名)이었다.

卒業年代別卒業醫師의 學位取得 現況을 보면 그룹 "A"는 90名中 博士學位 14.4%, 碩士學位 20.0%였고, 그룹 "B"는 博士學位 4.4%, 碩士學位 16.3%, 그룹 "C"는 博士學位 0.6%, 碩士學位 7.1%였다. 한편 學位取得과 專門醫資格 取得과 關聯시켜 보면 一般醫師(274名)中 博士學位를 取得한 醫師는 2.2%, 碩士學位만을 取得한 醫師는 8.4% 이었고 專門科目標榜資格 醫師中 博士學位를 取得한 醫師는 11.5% 碩士學位만을 取得한 醫師는 25.0%이었다(표 7).

學位取得率は 그룹 "A"가 가장 높고 그룹 "C"가 낮았다. 이러한 差異는 大學院 學位過程이 本人의 學問의 能力이나 熱心 외에도 經濟的 부담과 時間的 制約을 많이 받기 때문에 自然히 그러한 與件을 갖추려면 大學卒業後 상당한 時間이 必要하게 되는데 原因이 있다 하겠으며 특히 學制變更으로 正規過程만이 許容되는 學位過程에 더욱 그러한 可能性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專門醫 資格醫師의 學位取得率이 높은 것은 經濟的인 理由도 있겠지만 臨床修鍊의 機會가 學問的 要求를 자극하고 修鍊教育의 學問的 姿勢가 學位過程進學을 보다 容易하게 하는데 原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碩士學位(14.0%)만을 取得한 醫師가 博士學位(5.2%)를 取得한 醫師에 比하여 월등히 많은 것은 女子醫師들이 開業이든지 奉職이든지 간에 學位過程과 併用하는데 있어서 男子醫師에 比하여 많은 制約을 받고 특히 家庭과 職場과 學問을 同時에 이룰어 나가기가 肉體的 精神的으로 過重한 부담이 되어 碩士學位過程 後 博士學位過程進學에 어려움을 주는 데 그 原因이 있을 것 같다.

E. 醫療界參與分野

梨花醫大를 卒業하고 1976年 현재 國內에 居住하면서 醫療界에 從事하고 있는 醫師들이 參與하는 醫療分野를 보면 全體醫師 404名中 一般醫療醫院(19.8%) 또는 專門科醫院(10.6%) 등의 醫療施設을 自營하는 醫師가 30.4% (123名)이었고 綜合病院(14.3%), 醫科大學(5.2%), 專門科醫院(2.2%), 保健所(1.5%) 등의 醫療施設에 奉職하는 醫師가 23.7% (96名), 基礎醫學(1.0%), 인턴過程(11.4%), 레지던트過程(27.0%) 등 修鍊教育中인 醫師가 39.4% (159名) 그리고 現在 休職中에 있는 醫師가 6.5% (26名)였다.

卒業年代別로 醫師들의 從事하는 醫療分野를 보면 그룹 "A" (90名)는 自營者 67.8%, 奉職者 21.1%, 休職者 11.1%였으며, 그룹 "B" (160名)는 自營者 38.1%, 奉職者 46.8% 修鍊者 6.9% 休職者 8.2%였으며, 그룹 "C" (154名)는 自營者 0.6%, 奉職者 1.2%, 修鍊者 96.1%, 休職者 2.0%였다. 또한 梨花醫大 出身醫師들의 醫療從事하는 勤務地域 分布를 보면 全體 404名中 서울特別市地域에 86.4%, 一般都市地域에 12.6%, 그리고 邑面地域에 1.0%가 있었다(표 8). 朴等⁷⁾의 調査報告에 依한 우리나라 醫師의 地域別分布比率인 大都市(서울 및 釜山) 54.8%, 中小都市 34.4% 邑面 10.8%이고 女子醫師分布는 大都市 82.0% 中小都市 10.3% 邑面 7.7%와 比較하여 보면 梨花醫大 出身醫師들의 大都市集中度는 大端히 높으나 우리나라 全體 女子醫師와 類似한 分布度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女子醫師에 있어 男子醫師보다도 大都市集中度가 높은 原因은 出身大學의 大都市所在라는 特性과 卒業後 配偶者의 職場과 本人의 職場을 兩立시켜야 하는 特殊性에서 오는 現象이라고 생각된다.

梨花醫大 出身醫師들의 醫療界 參與度를 分野別로 보면 표 8에서와 같이 그룹 "A"는 自營者對奉職者의 比率이 67.8 : 21.1(%)이고 그룹 "B"는 38.1 : 46.8(%)인 반면 그룹 "A"에서는 自營者가 奉職者보다도 월등히 많음에 反하여 그룹 "B"에서는 오히려 奉職者가 自營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差異는 兩群의 專門醫資格取得率의 差異가 綜合病院奉職率[A : B = 5.6 : 32.5(%)]에 影響을 주고 있는데도 原因이 있겠지만 그 보다도 醫師들의 社會進出 經路가 大學卒業後 醫師免許를 받고 臨床修鍊教育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 過程을 修了한 다음 綜合病院이나 他 醫療施設에서 一定期間 奉職醫師로 勤務하면서 臨床經驗과 社會經驗을 쌓은 然後에 獨自의 醫療施設을 開設自營하는 過程을 밟는데 所要되는 年數와 期間에서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社會의 發達로 公的 醫療施設의 增設과 規模擴大는 漸次 奉職醫師의 數의 增大를 가져왔고, 醫療施設이나 機關에 따라서는 반드시 特定科目 專門醫資格만을 必須與件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醫療關係 職責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또한 獨自의 醫院을 開設하여 自營하는 데서 오는 行政的 經濟的 어려움과 複雜性은 將次 醫療施設 自營보다도 醫療施設奉職을 擇하려는 時代가 될 것으로 豫想되는바 특히 家庭과 職場을 兩立시켜야 할 女醫師의 立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奉職醫師選好라는 經過의 現象이 이미 그룹 "B"에 있어서는 나타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現象은 醫療의 社會化가 進展될 수록 加速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醫科大學教育 特別 女子醫科

표 8. 1976년도 정기의사진고한 무대거주 이화의대 졸업의사의 근무시설 및 근무지역별 분포(1951~1976년 졸업생)

구분	Group A (1951~1961)						Group B(1962~1971)						Group C (1972~1976)											
	합계		서술		기타		합계		서술		기타		합계		서술		기타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근무지역	서술	기타	음	면	시	지	서술	기타	음	면	시	지	서술	기타	음	면	시	지	서술	기타	음	면	시	지
의료시설	66	10	4	80	19.8	34	4	2	40	44.5	31	6	2	39	24.4	1	—	—	—	—	—	—	—	—
자영자	36	7	—	43	10.6	18	3	—	21	23.3	18	4	—	22	13.7	—	—	—	—	—	—	—	—	—
소계	102	17	4	123	30.4	52	7	2	61	67.8	49	10	2	61	38.1	1	—	—	—	—	—	—	—	—
%	82.9	13.8	3.3	100.0	85.2	11.5	3.3	100.0	80.3	16.4	3.3	100.0	100.0	—	—	—	—	—	—	—	—	—	—	—
종합병원	52	6	—	58	14.3	5	—	—	5	5.6	47	5	—	52	32.5	—	—	—	—	—	—	—	—	—
전문과의원	8	1	—	9	2.2	3	—	—	3	3.3	5	1	—	6	3.7	—	—	—	—	—	—	—	—	—
특수병원	2	—	—	2	0.5	1	—	—	1	1.1	1	—	—	1	0.6	—	—	—	—	—	—	—	—	—
보건소	6	—	—	6	1.5	3	—	—	3	3.3	3	—	—	3	1.9	—	—	—	—	—	—	—	—	—
의과대학	21	—	—	21	5.2	7	—	—	7	7.8	13	—	—	13	8.1	1	—	—	—	—	—	—	—	—
소계	89	7	—	96	23.7	19	—	—	19	21.1	69	6	—	75	46.8	1	—	—	—	—	—	—	—	—
%	92.8	7.2	—	100.0	100.0	—	—	—	100.0	92.0	8.0	—	—	100.0	50.0	50.0	—	—	—	—	—	—	—	—
기초의학	4	—	—	4	1.0	—	—	—	—	—	1	—	—	1	0.6	3	—	—	—	—	—	—	—	—
인턴과정	39	7	—	46	11.4	—	—	—	—	—	—	—	—	—	—	—	—	—	—	—	—	—	—	—
레지덴트과정	95	14	—	109	27.0	—	—	—	—	—	7	3	—	10	6.3	88	11	—	—	—	—	—	—	—
소계	138	21	—	159	39.4	—	—	—	—	—	8	3	—	11	6.9	130	18	—	—	—	—	—	—	—
%	86.8	13.2	—	100.0	—	—	—	—	—	—	72.7	27.3	—	100.0	87.8	12.2	—	—	—	—	—	—	—	—
류	20	6	—	26	6.5	9	1	—	10	11.1	8	5	—	13	8.2	3	—	—	—	—	—	—	—	—
자	77.0	23.0	—	100.0	90.0	10.0	—	—	100.0	61.5	38.5	—	—	100.0	100.0	—	—	—	—	—	—	—	—	—
합	349	51	4	404	100.0	80	8	2	90	100.0	134	24	2	160	100.0	135	19	—	—	—	—	—	—	—
%	86.4	12.6	1.0	100.0	88.9	8.9	2.2	100.0	83.7	15.0	1.3	100.0	87.7	12.3	—	100.0	—	—	—	—	—	—	—	—

大學에 있어서의 敎育目的과 方向은 이러한 時代的 社會的 變化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設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論 結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을 卒業하고 國內에 거주하면서 1976年度 醫師定期申告를 한 404명의 醫師를 대상으로 하여 졸업 후 修鍊敎育現況과 國內醫療活動現況을 調査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1) 1976年度 醫師定期申告한 國內居住 梨花醫大 出身 醫師 404名은 1951~1976年 期間中 梨花醫大 總卒業 1,014名에 對하여 40.0%에 該當하는 數이었다.

2) 梨花醫大 出身 醫師 404名의 93.3%는 大學卒業後 延長된 修鍊敎育으로 臨床醫學修鍊(90.6%)이나 基礎醫學敎育(1.7%)를 받았으며 卒業하고 醫師免許를 받은 뒤 곧바로 醫療에 從事한 醫師는 7.7%이었다.

3) 梨花醫大 出身 醫師의 졸업년도별 인턴修鍊率은 1951~1961년에 卒業한 그룹“A”는 82.2%, 1962~1971年의 그룹“B”는 90.0%, 1972~1976年의 그룹“C”는 96.0%로 年代經過에 따라 점차 인턴修鍊率은 높아지고 있었다.

4) 梨花醫大 出身 醫師들이 國內에서 인턴修鍊 또는 레지던트修鍊을 받은 敎育病院數는 梨花醫大 附屬病院을 포함하여 모두 46個病院이었으며, 그中 27個病院은 서울特別市地域에 있었다.

5) 梨花醫大 出身 醫師에 있어서 인턴修鍊을 받았던 醫師의 45.5%와 레지던트修鍊을 받았던 醫師의 49.3%가 梨花醫大 附屬病院에서 修鍊을 받았으며, 또한 인턴修鍊醫의 82.7%와 레지던트修鍊醫의 84.6%가 梨花醫大 附屬病院을 포함한 서울地域의 敎育病院에서 修鍊을 받았다.

6) 臨床修鍊過程의 인턴修鍊과 레지던트修鍊을 같은 修鍊病院에서 받았던 修鍊醫는 67.1%이었으며, 32.9%는 인턴修鍊과 레지던트修鍊을 각각 다른 病院에서 받았다.

7) 梨花醫大를 卒業하고 1951~1971年 期間中에 國內修鍊病院에서 레지던트修鍊過程을 이수한 醫師는 167名이었으며, 그中 專門科目 標榜資格을 받은 醫師는 131名(79.0%)이었다.

8) 專門醫標榜資格醫師 131名의 專門科目別 分布는 産婦人科 30.5%, 小兒科 17.0%, 眼科 14.0%, 耳鼻

咽喉科 8.0%, 內科 7.5%, 麻醉科 6.0%, 放射線科 4.5%, 臨床病理科 3.0%, 皮膚科 2.0%, 外科 1.5%, 神經精神科 1.5%, 豫防醫學 1.5%, 解剖病理學科 1.5% 및 整形外科 1.0%의 順이었으며, 形成外科, 神經外科, 胸部外科, 泌尿器科, 結核科를 專攻한 醫師는 없었다.

9) 梨花醫大 出身 醫師 404名中 博士學位 所有者는 5.2%였고 碩士學位만을 所有한 者는 14.0%이었으며 專門科目 標榜 資格醫師가 一般醫師에 비하여 높은 學位所有率을 보이고 있었다.

10) 梨花醫大 出身 醫師 404名의 醫療從事 地域別 分布는 서울地域 86.4%, 其他都市地域 12.6%, 邑面地域 1.0%이었다.

11) 梨花醫大 卒業 醫師(404名)의 30.4%는 醫療施設을 自營하고 있었으며 23.7%는 醫療關係 여러施設에 奉職勤務하고 있었고. 現在 修鍊敎育中인 醫師가 39.4%, 休職中인 醫師가 6.5%였다.

12) 또한 奉職勤務 醫師들(23.7%)의 主要職種은 綜合病院勤務醫師(14.3%), 敎授職(5.2%), 專門科醫院勤務醫師(2.2%), 保健所勤務醫師(1.5%), 特殊病院勤務醫師(0.5%)等이었다.

<後記 : 이 調査研究을 위하여 資料蒐集에 수고하여준 醫學科 朴淑賢, 金孝珍, 成錦英 학생들과 資料綜合을 도와준 大學院 醫學科 金敬姬, 郭貞玉 학생들에게 感謝한다 >

參 考 文 獻

- 1) 朴亨鍾 : 제 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의료제도 大韓醫學協會誌 20, 91~93, 1977.
- 2) 梨花女子大學校 : 大學案内, 26 및 308,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8.
- 3) 崔三燮 : 인턴·全科醫敎育의 問題點 및 進路, 醫學同人, 6, 42-47, 1977.
- 4) 梨花女子大學校醫科大學 : 卒業生名簿, 梨花女子大學校, 1976.
- 5)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同窓會 : 杏林(同窓會員名簿), 梨花女子大學校醫科大學同窓會, 1973.
- 6) 大韓醫學協會 : 醫師會員定期申告書綴, 大韓醫學協會, 1976.
- 7) 박혜영, 양미혜, 최규용 : 의과대학졸업의사의 의료 활동실태에 관한조사, 이화의학지, 10, 39~45, 1978